

국악계 최고의 등용문...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성황

# 판소리 명창부 장원에 이지숙씨... 대통령상 수상

**'심청가 - 주과포해' 대목 열창  
최고 상금 5000만원 수여  
시민과 함께 즐기는 축제 연출**

제44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서 이지숙씨(33, 남원시)가 판소리 명창부 장원을 차지했다.

이지숙 씨는 지난 18일 국립무형유산원 대공연장에 열린 제44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본선에서 판소리 '심청가' 중 '주과포해' 대목을 열창해 영예의 장원을 차지하며 명창의 반열에 올랐다.

국악계 최고의 등용문인 '제44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및 제36회 전주대사습놀이 학생전국대회'가 각 부문별 장원자를 배출하고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의 열띤 경연을 마쳤다.

시와 전주대사습놀이 조직위원회는 올해 전국대회를 제2의 도약을 위해 마련했던 지난해 대회의 혁신안을 바탕으로 대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더욱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성인대회에 지난해보다 80% 이상 증가한 377명(공도부 제외, 2017년 205명→2018년 377명)이 경연에 참여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팀이 참가해 그 어느 때보다 열띤 경연이 펼쳐졌다.

이번 전국대회의 판소리 명창부 장원에에게는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과 함께 국악계 최고 상금 5,000만원이 수여됐으며, 각 부문별 장원에게는 국무총리상(농악부), 문화체육관광



지난 18일 국립무형유산원 대공연장에 열린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서 판소리 명창부 장원을 차지한 이지숙씨가 깃발을 들어올리고 있다.

부장관상(기악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무용부), 문화방송사장상(민요부, 판소리 일반부) 등 부문별 상금이 수여되는 등 부문별 시상식이 이루어졌다. 특히, 올해 전국대회는 국악계 최대 규모의 상금과 함께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국악축제 한마당을 연출해 국악의 수도, 문화

특히 전주만의 위상을 드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첫 선을 보인 판소리 명창부 본선 청중평가단 제도가 올해도 이어지면서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한 것은 물론, 청중평가단 100명 모집에 117명이 지원하는 등 일반인들의 참여열기 또한 뜨거웠다. 이처럼 일반인의 심사 참여를 통한 국악의 대중성 강화에 공헌한 대회로 치러졌다.

아울러, 판소리 전승과 국악의 대중화를 이끌기 위해 올해 신설된 '신인 판소리 마당'에도 25명의 일반 시민·동호인들이 참여해 그동안 갖고 있던 실력을 뽐내며 판소리 인구의 저변확대와 더불어 전국대회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이외에도, 국악계 명인·명창들의 수준 높은 공연으로 2시간 30분간 펼쳐진 개막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4개의 섹션으로 이루어진 총 31개 프로그램, 225명의 출연진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기획공연을 통해 국악인들의 경연대회가 아닌 시민·관광객 모두가 함께 하는 축제의 장으로서 전주의 낮과 밤을 다채롭게 장식했다.

전주시 문화정책과 관계자는 "전주가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주목을 받고, 미래 한국의 문화를 이끌어갈 문화특별시를 주창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전주대사습놀이와 같은 뿌리 깊은 전통을 오롯이 지켜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올해 성공적인 대회를 통해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가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속의 문화유산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 막막한 삶의 길 위에서 발견한 사소한 일과 생각

**'내 마음의 안쪽' 등 4부로 구성**

현재 전북 무주우체국장으로 재직중인 황현중(시인·평론가)님의 첫 산문집 '딴짓 여로'를 출간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황현중 무주우체국장의 첫 산문집 '딴짓 여로'는 막막하고 느껴온 삶의 길 위에서 발견한 사소한 일과 생각을 총 76편(4부)의 소박하고 서정성 강한 미문(美文)으로 담아냈다. 시인 특유의 진솔한 인간미가 돋보이는 저자의 작품은, 평범한 일상을 매력적인 언어로 승화시켜 경쟁과 자본의 논리에 함몰된 현대인에게 순수하고 맑은 서정(抒情)을 다시 되돌려 주고 있다는 점



어둠을 뚫고 새로운 자아를 찾아가는 한 중년 사내의 지난한 몸부림이 가슴 깊은 곳을 찌르고 또 찌른다.

차복순 명창(전라북도국악원 창극단 지도위원)은 추천하는 글에서 "그는 지금 보

라빛 우체부가 되어 지적 장애를 가진 동생과 생선 장수 어머니에게, 평생을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온 아내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의 허허로운 삶의 영역에 훈훈한 꽃잎을 배달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저자의 인간다운 삶과 보헤미안적 서정성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황현중 국장은 부안 출신으로 한국시사문단을 통해 시와 평론으로 등단했다. 한국문인협회 회원, 한국시사문단가협회 회원, 한국시사문단 신인상 심사위원, 북한강문화계 추진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제6회 북한강문학상과 제9회 효석문화상을 수상했다. '조용히 웃는다'(2015. 그림과 책),

'너를 흐르는 파문이 좋은거야'(2016. 그림과 책) 등 두 권의 시집을 출간했으며, '전북체신 25년사'와 '행사·의전 뱅크'를 저술했다. 산문집 '딴짓 여로'는 일탈과 방황의 여정을 다룬 1부 '내 마음의 안쪽', 짝지 않은 생애 동안의 잊지 못할 추억을 다룬 2부 '시간의 여울목',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정치·사회·문화에 대한 비판 등을 담은 3부 '더불어 착한 세상', 낮고 깊은 곳에서 삶과 사랑을 찾는 격조 높은 시와 영화 감상평을 선불한 4부 '젊네마느낌표'로 구성되어 있다. /김영태 기자

**황현중 무주우체국장**

**첫 산문집 '딴짓 여로' 출간**

**무형유산으로서 농경·어로 전통지식 가치 공유**

무형유산인 농경과 어로 전통지식 가치를 나누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국립무형유산원은 22일 오후 1시부터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실 어울마루 3층에서 학술대회 '무형유산으로서 농경·어로 전통지식의 가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해 실시한 전라 지역 농경·어로 분야 전통지식에 대한 시범조사 성과를 공유하고, 그 가치를 조명하는 자리다.

기조발표인 '무형유산으로서의 농경·어로 재조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조사한 전라 지역에 대한 '농경·어로 무형유산 현장 시범조사의 성과와 의의', 해외 사례를 토대로 본 '세계중요농업유산의 관점으로 본 농경·어로 자원의 가치와 활용방안', 조사방안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기 위한 '무형유산으로서 농경·어로 조사의 효율화 방안' 등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뉴시스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